

《요트》 서하진 지음 | 문학동네 | 288쪽 |
값 9,800원

1994년 등단 이래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온 서하진의 다섯 번째 소설집 《요트》가 출간되었다. 총 여섯 편의 단편이 실린 이번 소설집에서 작가는 특유의 감각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표제작 《요트》 외에도 소설집에 실린 《퍼즐》, 《농담》, 《시간이 흘러가도》 등의 단편을 통해 작가는 가족 안에 숨겨진 폭력적 논리와 균열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겨울 가야산》 배창환 지음 | 실천문학 | 144쪽 |
값 7,000원

《흔들림에 대한 작은 생각》 이후 6년 만에 출간된 배창환의 시집. 그의 시들은 사회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파스한 서정을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그동안 보여주었던 사회적 상상력을 기저로 생의 구체성에 전착하고, 그것을 따듯한 시선으로 거두어들인다.

《길 위의 노래》 김시습 지음 | 정길수 편역 |
둘째 개정판 | 274쪽 | 값 8,500원

‘옛글 읽기의 즐거움’이란 기획의도로 출간된 둘째 개정판의 《우리고전 100선》 중 2번째 권으로 조선 문인 김시습 선집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정길수 씨가 편역해 정확하면서 깊이 있는 번역을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우리말의 맛을 살렸다. 당대 정치의 폐해와 백성의 현실에 주목했던 비판적 지식인 김시습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

김경훈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87쪽 | 값 13,000원
‘복잡성, 고령화, 클 네트워크, 자극, 공포, 일상, 융합’. 이들의 총합이 대한민국이다. 에너지이자 동기로서의 새로운 욕망은 한국의 미래가, 시장이, 트렌드가 어떤 지향점과 방향성을 갖게 될지 짐작케 하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욕망을 본격적으로 탐색해가는 과정이다. 저자는 한국인의 욕망을 이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변화의 물줄기를 꿰뚫어보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들꽃학교 노교사, 교육 희망을 보다》

이원구 지음 | 우리교육 | 248쪽 | 값 9,800원
그는 국어선생님이다. 그의 꿈은 대한학교를 짓는 것이었다. 외환위기와 교육을 겪으면서 삶과 교육의 자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만 불발로 그치고, 다시 꿈이 꿈으로 남은 사람. 그는 학교 안에 쓸모없는 땅과 눈여겨보지 않았던 들꽃을 아이들과 함께 가꾸면서 생명에 대해, 교육에 대해,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고 아이들과 소통한다.

《애국적인 한국, 외로운 한국》

이지은 지음 | 책세상 | 335쪽 | 값 15,000원
부제는 ‘300년 동안 유럽이 본 한국’이다. 이 책은 유럽인에 의해 전유되고 낱조된 한국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담론 분석이다. 기존의 책들이 근대 제국주의 시기, 특히 일제 강점기 당시 한국의 이미지만을 미시적으로 다루어왔다면, 이 책은 권력이 여러 개념과 패러다임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푸코의 담론이론을 적용해 300년에 걸쳐 형성된 유럽의 한국관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차 한 잔의 깨달음》

한승원 지음 | 김영사 | 292쪽 | 값 11,900원

작가 한승원의 산문집. 고희의 나이에도 손수 차밭을 가꾸며 다도에 심취해 있는 작가가 차란 무엇인지, 차 마시는 마음은 어떠한지에 대해 썼다. 차의 깊은 맛에 빚터어 스스로를 ‘꽃늪은이’라 부르는 그는 칠십 평생동안 깨달은 인생의 맛 안에 약 노릇을 했던 ‘차’가 있었음을 회고한다. 찌든 마음을 정하게 한다는 차에 대한 애정과 직접 들려주는 차 관련 정보가 알차게 담겨있다.

《실크로드 문명기행 - 오아시스로편》

정수일 지음 | 한겨레 | 392쪽 | 값 15,000원

문명교류사카이며 실크로드학 대가로 알려진 정수일 선생의 최초 문명 기행서. ‘한겨레 실크로드 답사단’ 일원으로 2005년 7월부터 8월까지 40일간 서울에서 이스탄불로 이어지는 실크로드 3대 간선의 하나인 ‘오아시스로’를 지난 기록이다. 기존의 실크로드 경로와는 다른길로 ‘실크로드의 재발견’을 목표로 시작된 기행은 전문 사진 기자들이 촬영한 200여 컷의 컬러 사진과 정수일 씨의 해설, 현지 학자들의 역사적 고증을 따라 진중하게 진행됐다.

《한국의 예언 문화사》

백승중 지음 | 푸른역사 | 388쪽 | 값 16,500원

《정감록 역모사건의 진실게임》
백승중 지음 | 푸른역사 | 380쪽 | 값 14,500원
미시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경희대 백승중 교수가 ‘예언서’를 주제로 한국사를 분석한 책 두 권을 함께 펴냈다. 《한국의 예언 문화사》는 18세기에 유행한 ‘정감록’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유행한 정치적 예언서의 내용과 사상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살폈고, 《정감록 역모 사건의 진실게임》은 영정조 시대에 발생한 세 건의 역모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배추가 돌아왔다(전2권)》

방동규 · 조주석 지음 | 다산책방 |
각권 280쪽 내외 | 값 각권 9,800원
‘시라소니 이후 최고의 주먹’이라는 명성으로 유명한 방동규의 파란만장한 삶이 흥미롭다. 백기완, 구중서, 김태선 등과 계몽운동을 펼친 것은 물론, 파독 광부생활을 한 이력도 남다르다. 간첩 혐의로 복역한 것 외에도 ‘조선 3대 구락’, ‘살인 빼고 안 해본 일 없고, 남극 빼고 안 가 본 곳 없는 맨몸 인생’ 등의 수식어가 붙어있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범상하지 않다. 대책 없는 돈키호테처럼 좌충우돌 살아온 인생이지만 삶에 대한 진정성을 누구 못지 않게 도드라진다.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 읽기》

한홍구 지음 | 노마드북스 | 349쪽 | 값 12,000원
부제 “파병국가의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뭇 눈길 가는 이유는 오늘의 사는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새삼 화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편안하지만 강한 어조로 현대사의 풀지 못한 숙제를 진단하고, 명쾌한 처방전을 날린다. 민간인 학살, 친일파와 과거청산, 군사주의, ‘미안해요 베타남’ 운동, 이라크 파병 등의 민감한 문제를 저자 특유의 화통한 언변과 빈틈없는 논리로 구연해내고 있다.

《근대를 다시 읽는다(전2권)》

윤해동, 천정환, 허수, 황병주, 이용기 외 지음 | 역사비평사 | 1권 590쪽, 2권 687쪽 |
값 각권 25,000원
한국의 근·현대사와 근대성을 새롭게 규명하고 있는 이 책은 젊고 적극적인 인문학·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글 가운데서 신선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낡고 오래된 가치와 학문적 방법을 과감히 넘어 서고자 한 글들을 찾아 실었다. 식민지 경험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선을 통해 ‘식민지 근대’라는 개념과 일제에 대한 ‘혐력’을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 경험과 해방 후 국민국가 형성과정의 어떻게 연동되어 있으며, 그 특수성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